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 분석 연구
-제주 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강희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24년 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 분석 연구
-제주 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송 현 정


강 희 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강희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 대 희 (서명) 

위 원 김옥영 (서명) 

위 원 송 현 정 (서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11월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udent-Selective
Curriculum in Korean Language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ocusing on general high schools in the Jeju region-

Kang Heejin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Hyunj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3. 1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ng Hyunjung ,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 분석 연구
-제주 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강 희 진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송현정

이 연구는 제주 지역의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와 관련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16교의 고교학점제에 따른 국어과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및 국어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 2018년 입학생과 2022년 입학생 대상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학교의 소재에 따라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하고, 규모에 따라 전체 학급 수를 30학급 이상, 30학급 미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어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한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편성과 관련한 쟁점으로 학생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 학교 간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격차를

도출하였으며, 운영과 관련한 쟁점으로 국어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수업·평가의 질 관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한 쟁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과목 선택 기준 정교화를 위한 국어 교과목 이수 경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간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어 교사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 교과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어 교과목의 적정 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다과목 지도 지원을 위한 다과목 담당 교사의 수업 시수 조정 또는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어 교과목 수업·평가의 질 관리를 위한 국어 교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국어 교과와 제주 지역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쟁점 및 개선 방향 도출을 함으로써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안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과 고교학점제, 제주 고교학점제

차 례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9
II.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기초 논의	13
1. 고교학점제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13
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17
III.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 분석	21
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황 분석	21
2.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인식 분석	36
IV.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쟁점 및 개선 방향	47
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쟁점	47
2.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 방향	51
V. 결론	60
<참고문헌>	64
<ABSTRACT>	67

표 차례

<표 1> 분석 대상 일반고등학교 개요	10
<표 2> 면담 참여자	12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편제와 교과목 구성	18
<표 4>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목별 내용	19
<표 5>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의 단위 수와 과목 수	22
<표 6> 2022년 입학생 기준 단위 배당표	23
<표 7> 국어과 학생 선택 과목의 단위 수와 과목 수	25
<표 8> 2022년 입학생 기준 단위 배당표	27
<표 9> 2022년 입학생 국어과 선택 과목 편성 현황	29
<표 10> 2022년 입학생 편성 과목(2~3학년)	30
<표 11> 국어 교사의 교과목 지도 현황	32
<표 12> 교과목별 표시과목 자격 기준	34
<표 13> 다과목·다교과 지도 현황	35
<표 14> 교사 대상 면담 내용	36

그림 차례

[그림 1]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	13
[그림 2]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	14
[그림 3]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14
[그림 4] 미래형 대입방향 추진 절차	15
[그림 5]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내용 및 절차	16
[그림 6] 국어 교과목 이수 경로 예시	52
[그림 7] 국어 교사 네트워크 운영	53
[그림 8] 국어 교과목의 적정 시수 확보 및 운영	56
[그림 9] 다과목 지도 지원 시스템	57
[그림 10] 국어 교사의 전문성 강화	59
[그림 1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 분석	60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회 구조 및 직업 세계의 급격한 변화, 지능정보기술의 발달,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세대의 학습 성향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2020. 10. 5.)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여 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은 2022년의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준비, 중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고도화, 교과서 체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변화하고 있는 교육제도로서 미래교육에 대한 현재 교육의 역동적 조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최소영, 2021).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조사와 수강신청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교육부, 2021a). 고교학점제를 통해 단순히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서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교육부, 2017).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2023~2024년에 전체 일반고 및 특목고를 대상으로 단계적 이행을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도의 단계적 적용기인 2023년은 각 학교가 학교 규정 및 체제 정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학업설계지도, 학생 수업 및 평가 내실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이다. 동시에 이 시기는 정책실

험 단계로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들을 해소해야 하는 단계이다. 정책실험 단계는 정책의 전면적 추진 이전에 일정 대상 집단에게 시행하여 정책을 정교화하는 단계로 시험적인 정책집행을 의미하는데, 이 시기는 정책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집행 오류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정책 실현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이종수, 2009). 따라서 2023년 현재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안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미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방안들을 탐색하고 있다. 김현미 외(2020), 이미숙 외(2019), 이주연 외(2021) 등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실태를 학교 소재지 및 학교 규모에 따라 분석하여 학생의 선택 과목 개설에 격차가 있음을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김영은 외(2023)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과 경향을 분석하여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한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해 행정 업무의 효율화, 시간표 작성 등의 시스템 지원, 교·강사의 원활한 수급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국어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미흡한 측면이 확인된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어과의 연구로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국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한정민 외, 2021), 대학 입시 제도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어교육의 과제(김지혜, 2020), 고교학점제 제도 변화에 따른 학생 평가 현안 및 과제(최소영, 2021) 등에 대한 연구에 불과하다. 고교학점제가 전국 단위의 정책이지만, 교과별로 교육 맥락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 사례에 초점을 두고 정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에 따른 2023년 국어과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및 국어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와 관련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책 연구들이다. 둘째는 지역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연구들이다. 셋째는 교과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연구들이다.

1)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연구

2017년도부터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책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비판적 고찰, 그리고 해외 운영 사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교과목의 체계 및 이수 경로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진숙 외, 2018; 이광우 외, 2018).

김진숙 외(2018)는 학점제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관련된 쟁점 사항으로 학점제의 정의와 구성요소, 필수와 선택 및 과목 선택권 확보, 대안적인 교과, 최소학점, 이수 기준, 졸업 기준, 대입과의 연계,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의 10가지를 두고, 각각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질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과 학교간 교육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광우 외(2018)는 고교학점제 실행 기반 구축 방안으로 수업시수의 적정화,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방안들이 내실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학점제를 구현 가능한 교육과정의 개발, 교과별 이수 기준 연구,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재이수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교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이동엽 외(2018)는 교사의 고교학점제 관련 전문성을 고교학점제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문성 개발의 방향성 논의 및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요구되는 교사 역량을 고찰하였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준비학교 교사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교원 양성 및 연수 제도의 개선 방향이 무엇 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실시, 교사의 선호를 고려한 과목 연수 실시, 교사 공동체 중심의 연수 실시, 지역별 교육대학원 적극 활용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8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지정되고 고교학점제 사례들이 확대·누적되면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 분석(김현미 외, 2020; 이주연 외, 2020),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과 경향 분석(김영은 외, 2023) 등 사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현미 외(2020)는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현황, 진로 및 학업설계지도 방식 및 체제, 학교 문화 및 공간의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측면에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연구학교 도입 전과 비교할 때 학생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와 선택 과목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학교 연차가 높은 학교, 대규모 학교, 대도시 소재의 학교일수록 더욱 많은 학생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내실화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으로 ① 학교의 학생 선택 과목 개설에 대한 컨설팅 실시, ②공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③소규모 및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 선택 과목 개설 지원 강화, ④세부 주제별 우수 사례 발굴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 안내 자료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주연 외(2020)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 수요 조사, 과목 편성 방법,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만족도 및 편성·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연구학교 및 준비학교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진로·학업 설계 및 과목 선택 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능동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사의 교육과정 이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과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의 구성 및 역량 강화 방안,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의 중·장기 방안, 교육과정 이수 지도 역량을 갖춘 교원의 양성 및 배치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영은 외(2023)는 연구·선도학교의 학생 선택 교육과정 편성, 소인수 과목, 고시 외 과목, 공동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전반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선도학교의 경험 및 연차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본격 적용 전에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운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한 선택 과목을 개설 성과 이면에는 교사의 다과목 지도,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시간표 편성 등에 따른 추가 행정 업무 등이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 효율화, 시간표 작성 등의 시스템 지원, 교·강사의 원활한 수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적하여 고교학점제 경험과 연차에 따른 종단적 변화나 추이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2) 지역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연구

2019년부터는 지역별 사례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대도시의 연구학교 운영 사례(홍원표 외, 2019), 경북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연구학교 운영 사례(강현석 외, 2019), 강원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연구학교 운영 사례(한주, 2019), 인천 대도시 중심의 연구학교 운영 사례(이지연 외, 2019) 등에 대한 분석 연구가 이뤄졌다. 이들은 지역, 학교 규모, 설립 유형에 따라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울산(오우진 외, 2022), 대구(서봉연 외, 2019), 경기도(이지영 외, 2022), 제주(이지현 외, 2023) 등 각 지역의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실태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신철균 외(2021)와 같이 교사, 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례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소수의 연구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거나, 지역 맥락을 고려하여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면면히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안영은 외, 2023), 경기형 고교학점제 연구(이지영 외, 2022) 등 지역 맥락을 반영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안영은 외(2023)는 서울 고교학점제의 운영 실태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태 분석, 안착 방안 도출을 위한 메커니즘 및 요구 분석 등을 제시하였다. 학교 규모에 따라 상치 과목 담당 빈도, 교사의 전문성 개발의 어려움, 교·강사 수급의 어려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교 공간 부족의 차이가 나타났다. 중요도, 시급도, 현장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서울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교강사 수급 시스템 개선, 학교별 학생 선택 과목 안내 영상 제작 및 배포, 수강신청 및 시간표 프로그램 고도화였다.

이지영 외(2022)는 경기도 소재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중점 운영 과제 5가지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학업설계지도, 학생 수업 및 평가 내실화, 학교 문화 및 운영 혁신,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과 더불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기준으로 삼아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각 학교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를 통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다양화되었으며, 교사들이 다과목·다교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 교수·학습의 변화,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교육과정이 ‘교사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것’이라는 관점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소재지, 학교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과목 개설, 교사 수급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과목 선택 시 학생 수가 많은 과목이 내신 성적 획득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과목 선택이 이뤄져서 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부서 조직의 재구조화, 다과목·다교과 관련 등에서 학교 내 갈등이 잠재해 있다는 점,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관련 사항에 대한 해결 또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분석하였다.

3) 교과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연구

교과 교육에서도 최근 선택 과목 운영 현황 및 교과외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교과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화영(2021)은 2015 수학과 교육과정 선택 과목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국 1709개 일반고의 수학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시도별 수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수학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수학 선택 과목을 편성하고 개설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개설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 중심의 학생 선택과 학교별로 기확보된 교사 수급 상황에 따르는 것을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도에서 개설·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에서 개설한 수학 과목은 학교별 개설률이 낮은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교과 과목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첫째, 학생의 수학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선택 과목 활성화를 위해 수학과 시수 및 수학 교사 확보, 수학과외의 적극적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학생 선택권 확보 노력을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선택권은 보장하되, 전공별로 꼭 필요한 내용은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수학 선택 과목을 구성할 때, 학기별 이수 경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를 대입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대학 진학, 전문학교 진학, 취업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속에 다양하게 반영되어 학문 코스, 응용 코스, 기초 소양 코스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차효정(2019)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서울 지역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해 영어과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학교 운영 전과 비교하였을 때, 영어과 선택 과목의 수는 확대되었지만, 단위학교 내 학생 수의 감소 및 미선택자 증가로 영어과 교사 수는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영어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진로 결정권 및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도적 기반의 한계로 대학 입시와의 연계성, 이수·미이수제, 교과교실 및 시청각 기자재 확충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영어과 교원의 입장에서는 과원 문제가 대두되고 교원의 역할과 업무 부담이 보다 가중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학생의 입장에서 진로 및 과목 선택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주(2021)는 개별 학교의 고교학점제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가정교과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과격적으로 확대된 과목 선택권을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입시 과목 중심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학령 인구 감소와 맞물려 가정 전공 교사의 정원 감소와 연결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대해 고교학점제에서의 교과 경쟁력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수업을 제공하는 데에서 찾아야 하며, 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수업 개선 노력 등 자발적인 전문성 향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목 설명회, 교육과정 안내서 등 교과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려 교과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교과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적극적인 과목 편성을 통한 가정 교과 관련 학생의 선택지 확대 등을 교사의 준비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교육청 및 교육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정과 교과연구회가 지역 교육청 단위의 교과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가정교과 연구회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연구는 2018년부터 확대·누적되고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편성·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과, 지역별로 구체화하여 각각의 맥락을 반영한 정교화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어과의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에서는 아직 이러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과와 지역의 맥락을 고려하여, 제주 지역의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그에 따른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실태(현황 및 인식)를 분석하고,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법은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case) 혹은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cases)을 대상으로 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 등의 정보원을 통해 탐색한다(Creswell,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육부의 보도자료,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과 연구·준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의 학교별 자료와 학교별 국어 교사와의 심층 면담 자료 등을 수집하여 운영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1) 문헌 고찰

다양한 문헌을 통해 고교학점제와 함께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교육부 보도자료 및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을 통하여 고교학점제 도입부터 현재까지 고교학점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추진 경과와 함께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의미와 중요성,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용 및 절차를 살펴보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등장 맥락과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국어과로 구체화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고교학점제의 도입 발판이 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국어과 편제와 교과목 구성, 교과목별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2023년 현재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의 기반이 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과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2) 자료 분석

고교학점제 준비 및 실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제주 지역 일반고

16교의 학교교육계획서, 연구·준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 학교교육과정 편제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됨을 고려하여 2018년 입학생의 고1~고3까지 3년간의 교육과정 내용과 2022년 입학생의 고1~고3까지 3년간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의 학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023년의 운영과 유의미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2017년 운영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교의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편성 유형, 편성 내용, 운영 내용으로 항목을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경험이 있는 국어 교사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조사 항목(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 시기: 2023년 9월
- 조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고등학교 16교
 - 제주 지역 일반고등학교 22교(고교학점제 준비학교 21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1교) 중 특성화학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5교 및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1교를 제외한 16교를 대상으로 함.
- 조사 내용: 국어 교과목 편성 유형(2018년, 2022년 입학생), 국어 교과목 편성 내용(2022년 입학생), 국어 교과목 운영 내용(2017년, 2023년)

<표 1> 분석 대상 일반고등학교 개요

(기준: 2023. 04. 01.)

학교	학교 현황						연구·준비학교 연차
	설립 유형	소재지역	전체		2학년 (2022년 입학생)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명)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명)	
A교	공립	서귀포시 읍면 (농어촌)	14	297	4	83	준비학교 2년차
B교	공립	서귀포시 읍면 (농어촌)	14	307	4	94	연구학교 3년, 준비학교 3년차
C교	사립	서귀포시 동 (중소도시)	22	595	7	193	준비학교 2년차

학교	학교 현황						연구·준비학교 연차
	설립 유형	소재지역	전체		2학년 (2022년 입학생)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명)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명)	
D교	사립	서귀포시 동 (중소도시)	22	598	7	193	준비학교 3년차
E교	공립	서귀포시 동 (중소도시)	22	592	7	193	연구학교 3년 준비학교 2년차
F교	공립	제주시 읍면 (농어촌)	22	571	7	185	준비학교 3년차
G교	공립	제주시 읍면 (농어촌)	22	542	7	175	준비학교 5년차
H교	공립	서귀포시 동 (중소도시)	23	610	7	201	준비학교 2년차
I교	국립	제주시 동 (중소도시)	30	832	10	296	연구학교 3년차
J교	사립	제주시 동 (중소도시)	35	1019	11	317	준비학교 4년차
K교	사립	제주시 동 (중소도시)	34	991	11	316	준비학교 5년차
L교	사립	제주시 동 (중소도시)	36	1017	11	325	준비학교 2년차
M교	사립	제주시 동 (중소도시)	38	1098	11	329	준비학교 3년차
N교	사립	제주시 동 (중소도시)	40	1,203	13	399	준비학교 2년차
O교	공립	제주시 동 (중소도시)	42	1183	14	406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P교	공립	제주시 동 (중소도시)	41	1156	14	416	준비학교 5년차

3) 면담 조사

자료 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및 인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였다. 학교별 국어과의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법, 수업 운영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교사 경력의 고교학점제 업무 경험이 있는 지역별 국어 교사 4명을 포함하여, 5년 이상 교사 경력의 국어 교사 총 8명을 <표 2>와 같이 지역별로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온라인 대면 면담(ZOOM 활용)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 1인당 1시

간 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외에 연구에 필요한 질문이 있을 때는 비정기적으로 전화 면담을 요청하여 교육과정 진행 현황을 파악하였다. 면담 녹취본을 전사 자료로 가공하여 활용하였으며, 전사 자료는 면담 대상자의 검토를 통해 원자료의 의미를 명료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 조사 시기: 2023년 9월
- 조사 대상: 교사 8명(제주특별자치도 일반고등학교 8교 소속)
- 조사 내용
 -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국어 교과목 편성 시 국어 교사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지역 또는 학교 간 국어 교과목 편성의 격차 발생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방안,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국어 교과목 편성의 어려움 인식
 -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국어 교과목 운영의 어려움 인식, 내실 있는 국어 교과목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표 2> 면담 참여자

소재 지역	지역 규모	전체		2학년 (2022년 입학생)		면담 참여자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제주시 동	중소도시	42	1183	14	406	O교 교사
제주시 동	중소도시	41	1156	14	416	P교 교사
서귀포시 동	중소도시	22	598	7	193	D교 교사
서귀포시 동	중소도시	22	592	7	193	E교 교사
제주시 읍면	읍면지역	22	571	7	185	F교 교사
제주시 읍면	읍면지역	22	542	7	175	G교 교사
서귀포시 읍면	읍면지역	14	297	4	83	A교 교사
서귀포시 읍면	읍면지역	14	307	4	94	B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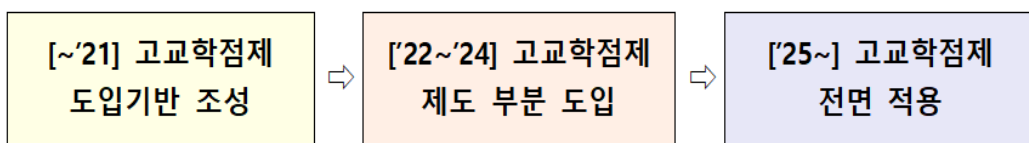
II.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기초 논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특징과 함께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이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고교학점제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1) 고교학점제 정책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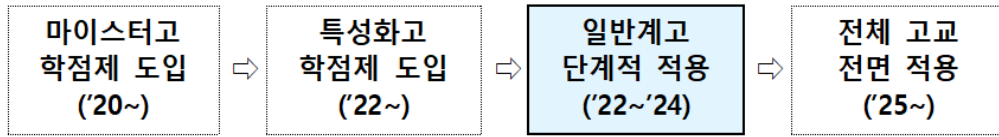
고교학점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제시한 이후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으로,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대학 입시와의 연계, 학교 평가 등과 관련하여 2018년 8월에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통한 학점제 추진 단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고, 2021년 2월에 2025년 전면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림 1]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교육부:2018)

그리고 교육부는 2021년 8월 23일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의 주요 사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분 도입 시기의 구체적 제도 적용에 대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그림 2]와

같이 2020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2022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2022년~2024년 일반고 단계적 적용, 2025년 전체 고교 전면 적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교육부:20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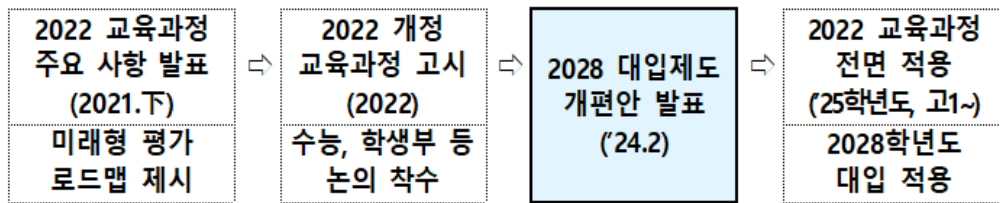
	기반 마련	운영체제 전환	제도의 단계적 적용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1	'22	'23	'24	'25~
수업량 기준	단위	단위 (특성화고: 학점)	학점		학점
총 이수학점	1~3학년 204단위	1학년 204단위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2학년 204단위	2학년 204단위	2학년 192학점	2학년 192학점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204단위	3학년 192학점
연구·선도학교 비중*	55.9%	84%	95%	100%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책임교육	준거 개발	교원 연수 시도·학교 준비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전 과목 미이수제 도입
평가제도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공통, 일반선택과목 9등급 병기)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공통과목 9등급 병기)

[그림 3]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교육부:2021b)

고교학점제는 [그림 3]과 같이 기반 정비를 거쳐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은 전체 일반계고의 80% 이상 연구·준비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고교학점제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연

구·준비학교 공통과제’를 부여해 준비학교의 학점제 준비도를 제고하였다. 2023년부터 2024년은 수업량을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고, 공통 과목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성취평가제의 확대나 미이수에 대한 부분은 2025년에 도입할 예정이다(교육부, 2021b).

한편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예고하였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서는 미래형 평가의 방향, 학생부 기재 및 수능 과목의 구조, 평가 방법, 대학의 전형 제도 설계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인 2022년 12월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필요한 국가 교육과정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그림 4] 미래형 대입방향 추진 절차(교육부:2021b)

2)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이후 도입 및 확대되어 온 기존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학생의 과목 선택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공유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면서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통해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교육부 외, 2023)을 일컬으며, 다양한 과목 선택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소인수 과목,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한다(허예지 외, 2023). 또한 단순한 과목 선택권 부여에서 벗어나 학생의 과목 선택 과정에 교육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학생이 진로와 진학,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이주연 외, 2020).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의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물론 학교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단위학교 차원에서 선택 과목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 가고 있는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임유나, 2023).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편성은 교과 영역의 개방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첫째, 교과 영역 내 선택형(최소 개방형)이다. 학생들은 각 교과 영역(기초/탐구/체육·예술/생활·교양) 내에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일부 교과 영역 간 과목 선택형으로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영역 중 일부 영역 간 칸막이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전체 교과 영역 간 과목 선택으로, 모든 교과 영역에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개방형)할 수 있도록 교과 영역 사이의 칸막이를 모두 없앤 경우이다.

1단계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초 작업
2단계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3단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안 마련
4단계	진로·학업 설계 지도
5단계	학생 선택 과목 수요 조사
6단계	수강신청 및 수업 시간표 작성
7단계	교사/교실 배정 및 시간표 출력
8단계	수업 운영 준비

[그림 5]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내용 및 절차(교육부 외:2023)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는 [그림 5]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한편 단위학교는 학교 교원, 외부 강사 및 학교 시설 등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가능한 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교육과정의 유형은 공동교육과정 수업 방식에 따라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과 연합형 공동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보완하고 지역과 사회의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로 신설을 추진 중인 ‘온라인학교’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개설 수요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 밖 교육이란 학생이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수강을 희망한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1)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

우리 나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개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조함으로써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8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적합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8).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 지식을 균형

있게 학습하고,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의미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원칙을 세웠다(교육부, 2014).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에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다양한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되며, 보통교과는 공통 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교과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위한 심화 과목들(전문교과 I)과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위한 전문 과목(전문교과 II)들로 구성된다.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었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과 별도로 모든 고등학생이 이수해야 할 공통 과목을 신설하였다. 일반선택 과목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라면, 진로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이다. 교육부(2020d)에 따르면, ‘기본 국어’는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인 ‘국어’보다 먼저 편성·운영할 수 있고, ‘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게 하였다.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편제와 교과목 구성(교육부:2015)

공통 과목	보통교과 선택 과목		전문교과	대입 수능 과목(204학년도)
	일반선택	진로선택	전문교과 I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문예 창작 입문, 문학 개론, 문장론, 문학과 매체, 고전문학 감상, 현대문학 감상, 시 창작, 소설 창작, 극 창작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택1)

각각에 포함된 과목 편제는 <표 3>과 같다.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0)에 따르면, 고등학교 국어는 졸업에 필요한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이다. 공통 과목인 ‘국어’는 기본 8단위이나 2단위 내에서 감(減)하여 편성·운영이 가능하고,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들은 기본 5단위이나 ±2로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전문교과 과목을 일반고등학교에서 개설할 경우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

성 · 운영한다.

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국어과의 선택 과목, 즉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과 국어과의 진로선택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는 전문교과 과목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목별 내용(교육부:2015)

구분	과목명	내 용
보통 교과 (일반 선택)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의 본질, 화법의 원리와 실제, 작문의 원리와 실제, 화법과 작문의 태도
	독서	독서의 본질, 독서의 방법, 독서의 분야, 독서의 태도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의 본질, 국어의 탐구와 활용,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문학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문학에 대한 태도
보통 교과 (진로 선택)	실용 국어	직무 어휘와 어법, 정보의 해석과 조직, 설득과 협력적 문제 해결,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 문화와 교양
	심화 국어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와 문화 활동, 윤리적 사고와 학문 활동
	고전 읽기	고전의 가치, 고전의 수용, 고전과 국어 능력, 고전과 삶
전문 교과 I	문예 창작 입문	문예 창작의 본질, 삶과 문예 창작
	문학 개론	문학의 본질, 문학과 삶
	문장론	진술 방법, 표현 방법, 문장 작성의 과정, 문체
	문학과 매체	문학과 문자 매체, 문학과 공연·영상 매체, 문학과 조형 매체
	고전문학 감상	고전문학의 특질과 전개, 고전문학의 감상과 비평, 고전 문학의 확장
	현대문학 감상	현대문학의 특질과 전개, 현대문학의 감상과 비평, 현대문학의 확장
	시 창작	시 창작의 요소, 시 창작 과정
	소설 창작	소설 창작의 요소, 소설 창작 과정
	극 창작	극문학 창작의 요소, 극문학 창작 과정

김영은 외(2021)는 2015 국어과 교과목 편제와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국어과 교과목 구성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국어 교과목 수가 적고 다양하지 못하며, 학생이 흥미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에 있어서 해당 과목명의 매력도가 크지 않아 편으로,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나 목표를 충분히 살리기에 부족하다고 제시한다. 둘째, 일반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의 경우, ‘학문 내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의 성격을 지닌 일반선택 과목으로서 국어과 학문의 내적 당위성과 수능 대상 과목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진로선택 과목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의 경우, 학습자의 다양한 진로와 그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과목 수도 많지 않고, 현재 과목명 및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학생이 진로를 고민하여 과목을 선택할 때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어과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I의 성격이 상이하야, 선택 과목 이수 경로를 지정하기가 어렵고, 과목의 내용 간 중복이나 수준 차이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한다. 일반고등학교의 진로선택 과목이 <문예 창작 입문>, <시 창작>, <소설 창작>, <극 창작> 등 특정한 분야(예술계)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Ⅲ.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 분석

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황 분석

학교교육과정 편성은 편성 유형(학교 지정 과목, 학생 선택 과목), 편성 방식(학기제, 학년제, 혼용), 교과목 편성 현황(과목명, 편성 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어 교과목 편성 유형, 국어 교과목 편성 내용(방식, 현황), 국어 교과목 운영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보다 풍부한 해석을 위해 입학생별 결과와 더불어 배경변인(학급 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기초 교과(국어, 영어, 수학) 내 비교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1) 국어 교과목 편성 유형

(1) 학교 지정 과목

입학년도별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의 단위 수와 과목 수는 <표 5>와 같다. 입학년도별 각 학년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1, 2학년에서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 단위와 과목 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3학년에서는 큰 변화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3학년 국어과 지정 과목 단위 수를 살펴보면, 2022년 입학생의 경우 2018년 입학생보다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역과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보면 읍면지역과 30학급 미만 학교가 각각 동지역과 30학급 이상 규모 학교보다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 단위 수와 과목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2018년 입학생의 3학년 2학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표 5〉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의 단위 수와 과목 수

구분	2018년 입학생						2022년 입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단위 수	과목 수	단위 수	과목 수	단위 수	과목 수	단위 수	과목 수	단위 수	과목 수	단위 수	과목 수	
A교	8	1	10	2	7	2	8	1	8	2	4	1	
B교	8	1	4	1	4	1	8	1	8	2	0	0	
C교	8	1	10	2	8	2	8	1	8	2	0	0	
D교	8	1	8	2	4	1	8	1	10	2	0	0	
E교	8	1	8	2	8	2	8	1	8	2	4	1	
F교	8	1	8	2	6	2	8	1	8	2	0	0	
G교	8	1	4	1	0	0	8	1	8	2	0	0	
H교	8	1	8	2	8	2	8	1	8	2	0	0	
I교	8	1	10	2	7	2	8	1	8	2	0	0	
J교	8	1	8	2	8	2	8	1	8	2	0	0	
K교	8	1	8	2	10	2	8	1	6	2	8	2	
L교	6	1	10	2	0	0	6	1	8	2	8	2	
M교	8	1	8	2	8	2	8	1	8	2	4	1	
N교	8	1	10	2	8	2	8	1	8	2	6	2	
O교	8	1	8	2	8	2	8	1	8	2	0	0	
P교	8	1	8	2	8	2	8	1	8	2	0	0	
전체 합계	54	7	60	14	50	12	54	7	54	14	26	7	
전체(16교) 평균	7.88	1	8.13	1.9	6.38	1.63	7.88	1	8	2	2.13	0.57	
지역	읍면 지역 평균 (4교)	8	1	6.5	1.5	4.25	1.25	8	1	8	2	1	0.25
	동지역 평균 (12교)	7.83	1	8.67	2	7.08	1.75	7.83	1	8	2	2.5	0.67
규모	30학급 미만 평균 (8교)	8	1	7.5	1.75	5.63	1.5	8	1	8.25	2	1	0.25
	30학급 이상 평균 (8교)	7.75	1	8.75	2	7.13	1.75	7.75	1	7.75	2	3.25	0.88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단위학교의 국어 교과목의 단위 수 감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장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국어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겨난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초 교과 전체 단위 수 감소에 따른 국어 교과목의 단위 수 감소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2009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24단위를 제외한 전체 이수 단위 180단위 중 기초 교과의 이수 단위가 90단위(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 방침은 유지되었지만, 기초 교과에 한국사 6단위가 추가 편제되면서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총 이수 단위가 84단위로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국어과의 경우 기존 10단위에서 8단위로 필수 이수 단위 수가 감소되었고, 학교별 자율 편성 단위를 포함하더라도 84단위 내에서 다른 기초 교과(국어, 수학)와 경쟁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표 5>에서 2022년 입학생의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의 단위 수를 살펴보면,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을 최소로 편성한 학교는 1, 2학년 16단위 편성으로 9개교(B교, C교, F교, G교, H교, I교, J교, O교, P교)에 해당한다. 이 학교들은 2학년 국어 교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3학년 국어 교과목을 학생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공통점이 있다. 한편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을 최대로 편성한 학교는 22단위 편성으로 3개교(K교, L교, N교)에 해당한다. 이 학교들의 2022년 입학생의 수학·영어과 학교 지정 과목의 단위 수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 2022년 입학생 기준 단위 배당표

구분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 단위 수	수학과 학교 지정 과목 단위 수	영어과 학교 지정 과목 단위 수
B교	16	20	20
C교	16	20	20
F교	16	16	24
G교	16	20	16
H교	16	18	15
I교	16	16	16

구분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 단위 수	수학과 학교 지정 과목 단위 수	영어과 학교 지정 과목 단위 수
J교	16	18	22
O교	16	20	24
P교	16	20	16
K교	22	20	22
L교	22	26	22
N교	22	24	22
평균	17.50	19.83	19.92

<표 6>에서 2022년 입학생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교 지정 과목 총 편성 단위 수를 비교해보면,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중 국어과 지정 과목이 가장 많이 편성된 학교는 1교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교 중 수학과가 가장 많이 편성된 학교는 5교(G교, H교, P교, L교, N교)이고, 영어과가 가장 많이 편성된 학교는 3교(F교, J교, O교), 수학과와 영어과가 동일한 시수로 가장 많이 편성된 학교는 2교(B교, C교), 국어과와 영어과가 동일한 시수로 가장 많이 편성된 학교는 1교(K교)이다.

이러한 양상은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앞으로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편성 추세를 가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즉, 기초 교과 편성 시수 내에서 국어과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이끌어 내고 최종적으로 단위학교의 국어 교사 수 대비 편성 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국어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학생 선택 과목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중심은 실질적 과목 선택권의 확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 수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과목 수(이수 단위를 고려한 선택 가능 과목 개수)를 파악하였다. 이때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 과목권의 확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적용 대상인 2018년 입학생의 3개년 편제표와 현재 2학년인 2022년 입학생의 3개년 편제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학년도별 학생 선택 과목의 단위 수와 학생 선택 과목 수(이수 단위를 고려한 선택 가능 과목 개수와 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 수)는 <표 7>과 같다.

<표 7> 국어과 학생 선택 과목의 단위 수와 과목 수

※ 최소~최대 단위 수: 과목 선택에 따른 단위 수

※ 최소~최대 과목 수: 이수 단위를 고려한 학생 선택 가능 개수(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 수)

구분	2018년 입학생				2022년 입학생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단위 수	과목 수	단위 수	과목 수	단위 수	과목 수	단위 수	과목 수
A교	4	1(3)	0	0	0	0	4~8	1~2(3)
B교	4	1(2)	0~12	0~3(3)	0~4	0~1(1)	4~20	1~5(6)
C교	0	0	0~4	0~1(1)	0	0	8~14	2~2(6)
D교	0	0	0~9	0~2(4)	0	0	8	2(4)
E교	0~4	0~1(2)	0	0	0	0	4~10	1~2(3)
F교	0	0	4	1(2)	0	0	7~17	1~3(4)
G교	4	1(2)	10	2(5)	0	0	10	2(4)
H교	0	0	0~10	0~2(2)	0	0	4~16	1~4(5)
I교	0	0	0~5	0~1(1)	0~4	0~1(1)	6~14	1~3(4)
J교	0	0	2	1(2)	0	0	6~14	1~3(4)
K교	0	0	0~6	0~1(1)	0~6	0~1(1)	0~12	0~2(2)
L교	0	0	12	2(5)	0~4	0~1(1)	0~8	0~2(2)
M교	0	0	0	0	0	0	4~10	1~2(3)
N교	0	0	0	0	0~4	0~1(1)	0~8	0~2(2)
O교	0	0	0~9	0~2(2)	0~4	0~1(2)	8~12	3(3)
P교	0	0	0~10	0~2(2)	0~4	0~1(1)	8~12	2~3(5)

구분	2018년 입학생				2022년 입학생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단위 수	과목 수	단위 수	과목 수	단위 수	과목 수	단위 수	과목 수	
전체(16교) 평균	0.75~1	0.19~ 0.25 (0.57)	1.75~ 5.86	0.19~ 1.26 (1.88)	0~1.63	0~0.38 (0.38)	5.25~ 10.25	1.19~ 2.38 (3.63)	
지역	읍면 지역 평균 (4교)	3	0.75 (1.75)	3.5~6.5	0.75~ 0.17 (2.5)	0	0	6~13.5	1.25~3 (4.25)
	동 지역 평균 (12교)	0~0.33	0.08 (0.17)	1.70~ 5.58	0.33~ 1.17 (1.67)	0~1.83	0~0.42 (0.42)	5~9.17	1.17~ 2.17 (3.42)
규모	30학급 미만 평균 (8교)	1.5~2	0.38~ 0.5 (1.13)	1.75~ 6.13	0.00~ 1.38 (2.13)	0~0.5	0~0.13 (0.13)	6.50~ 11.75	1.50~ 2.5 (4.38)
	30학급 이상 평균 (8교)	0	0 (0)	1.75~ 5.5	0.38~ 1.13 (1.63)	0~2.75	0~0.63 (0.63)	4~8.75	0.88~ 2.25 (2.88)

※ 1학년은 학생 선택 과목 미편성

<표 7>의 분석 결과, 2018년 입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2022년 입학생의 선택 과목, 특히 2022년 입학생의 3학년 선택 과목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입학생의 선택 과목을 학교별로 비교해봤을 때 읍면지역 학교가 동지역 학교보다 개설 가능한 과목 수, 선택 가능한 과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30학급 미만의 학교가 30학급 이상의 학교보다 개설 가능한 과목 수, 선택 가능한 과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임유나(2023)의 연구에서 소규모 학교는 중·대규모 학교에 비해 학교가 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 수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선택한 과목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농어촌 학교가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보다 학생 선택 과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앞서 <표 6>에서 살펴보았던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 최소 편성 학교 9교(B교, C교, F교, G교, H교, I교, J교, O교, P교)와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 최대 편성 학교 3교(K교, L교, N교)의 학생 선택 과목 단위 수 현황을 2022년 입학생의 수학·영어과 학생 선택 과목의 단위 수를 비교하였다.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2022년 입학생 기준 단위 배당표

※ 최소, 최대 단위 수: 과목 선택에 따른 최소, 최대 단위 수임.

구분	국어과 학생 선택 과목 단위 수		수학과 학생 선택 과목 단위 수		영어과 학생 선택 과목 단위 수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B교	4	24	0	16	0	16
C교	8	14	6	12	4	10
F교	7	17	7	21	0	9
G교	10	10	10	10	10	10
H교	4	16	8	15	3	15
I교	6	14	6	14	6	14
J교	6	14	6	22	0	12
O교	8	16	6	18	0	8
P교	8	16	4	8	8	16
K교	0	18	0	18	0	18
L교	0	12	0	12	0	12
N교	0	12	0	12	0	8

<표 8>을 보면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 최소 편성 학교 9교(B교, C교, F교, G교, H교, I교, J교, O교, P교)에서는 학생이 국어과 학생 선택 과목 최소 단위 수가 4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학생이 국어 교과 내에서 4단위 이상 반드시 선택하도록 학교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 최대 편성 학교 3교(K교, L교, N교)에서는 국어과 학생 선택 과목의 최소 단위 수가 0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어 교과 내에서 반드시 선택하도록 학교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국어과 학

교 지정 과목 단위 수가 가장 적은 학교 9교가 학생 선택 과목 최소 단위 수가 편제되어 있다는 것은,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국어과 감소 단위 수만큼 학생 선택 과목 단위 수로 자연스럽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수학과와 영어과는 학교 지정 과목 수와 상관없이 교과영역 내 선택 편성을 통해 일정 시수 이상 확보한 학교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서 수학과 학교 지정 과목이 가장 많이 편성된 학교는 5교(G교, H교, P교, L교, N교) 중 P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국어과 선택 과목 단위 수와 거의 동일하게 편제되었다. 영어과 학교 지정 과목이 가장 많이 편성된 학교는 3교(F교, J교, O교) 중에서도 J교의 경우 국어과 학생 선택 과목 단위 수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 또한 F교, J교, O교는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해 수학 단위 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7>에서 국어과의 선택 과목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의 국어과 전체 단위 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어 교과목의 학생 수요와 국어 교과목의 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겠다.

2) 국어 교과목 편성 내용

국어 교과목별 편성 학교 수를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일반선택 과목은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모두 16교의 일반고에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 과목에서는 <심화 국어> 94%로 나타났으며, <고전 읽기> 68.75%, <실용 국어> 0% 순으로 나타났다. <실용 국어>는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진로선택 과목으로 일상생활 및 직업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국어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 특성상 일반고가 아니라 특성화고 편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문교과 편성률은 <현대문학 감상> 62.5%, <고전문학 감상> 31%, <문학과 매체> 19%로, 이들을 제외하면 일반고에서 전문교과를 거의 개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2022년 입학생 국어과 선택 과목 편성 현황

구분	과목명	편성 학교 수 (편성율)	편성 방식		편성 학년 및 학기						학급 수별 편성 수		
			학교 지정 (편성율)	학생 선택 (편성율)	2학년			3학년			30 학급 미만	30 학급 이상	
					1 학기	2 학기	1,2 학기	1 학기	2 학기	1,2 학기			
보통교과	일반	문학	16 (100%)	16 (100%)	16 (100%)	16	0	0	0	0	0	8	8
		독서	16 (100%)	16 (100%)	16 (100%)	13	0	0	2	1	0	8	8
	선택	화법과 작문	16 (100%)	4 (25%)	12 (75%)	0	0	0	8	2	6	8	8
		언어와 매체	16 (100%)	4 (25%)	12 (75%)	0	0	3	7	0	6	8	8
	진로선택	심화 국어	15 (94%)	1 (6.67%)	14 (93.33%)	0	0	1	1	3	10	8	7
		고전 읽기	11 (68.75%)	0	11 (100%)	0	0	3	1	2	5	5	6
		실용 국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문교과 (예술계열)	현대문학 감상	10 (62.5%)	1 (10%)	9 (90%)	0	0	3	0	2	5	4	6	
	고전문학 감상	5 (31%)	0	5 (100%)	0	0	0	1	1	3	2	3	
	문학과 매체	3 (19%)	1 (33%)	2 (66.67%)	0	0	0	0	2	1	3	0	
	문예 창작 입문	0 (0%)	0	0	0	0	0	0	0	0	0	0	
	문학 개론	0 (0%)	0	0	0	0	0	0	0	0	0	0	
	문장론	0 (0%)	0	0	0	0	0	0	0	0	0	0	
	시 창작	0 (0%)	0	0	0	0	0	0	0	0	0	0	
	소설 창작	0 (0%)	0	0	0	0	0	0	0	0	0	0	
	극 창작	0 (0%)	0	0	0	0	0	0	0	0	0	0	

학급 수에 따른 교과목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반선택 과목은 학급 수와 무관하게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고 있으나,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교과는 편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능 출제 과목인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모든 학교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능 과목 중 선택 응시 과목인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수능 응시 선택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학교의 사례가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한 학교의 사례보다 많이 나타났다. 수능 선택 응시 과목인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12교 중 4교로 j교, k교, l교, m교에 해당한다. 이 학교들은 동지역의 30학급 이상 규모의 사립학교라는 공통점이 있다.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는 보통교과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성적이 1~9등급의 등급으로 산출되는 상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을수록, 즉 학생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할 때 상위 등급 성적 산출에 유리하다.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하면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최대의 학생(편성 학년의 전체 학생)이 해당 수업 수강생으로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내신 성적을 산출하게 되면, 상위 등급 학생 분포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4교의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의 학교 지정 과목 편성은 대입과 관련하여 해당 과목 내신성적 산출의 유리함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로선택 과목 중 <심화 국어>, 전문교과 중 <현대문학 감상>과 <문학과 매체>는 각각 1교씩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에서는 학생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2022년 입학생 편성 과목(2~3학년)

구분	국어과 편성 과목 수	수학과 편성 과목 수	영어과 편성 과목 수
A교	6	6	5
B교	9	8	7
C교	7	7	6
D교	7	9	7
E교	7	8	6
F교	6	7	6
G교	6	8	6

구분	국어과 편성 과목 수	수학과 편성 과목 수	영어과 편성 과목 수
H교	7	10	8
I교	7	9	6
J교	6	9	7
K교	7	8	7
L교	7	8	6
M교	6	9	6
N교	7	9	6
O교	6	8	6
P교	7	7	8
평균	6.62	8.38	6.54

<표 10>은 일반고 16교의 2022 입학생 대상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편성 과목 수이다. 2~3학년에 편성된 교과별 학교 지정 과목과 학생 선택 과목 수를 합산한 결과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수학과 과목이 평균 8.38과목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국어 교과목이 평균 6.62과목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교과목은 최소 6개~최대 9개, 수학과 과목은 최소 6개~최대 10개, 영어과 과목은 최소 5개~최대 8개로 편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의 환경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국어과의 다양한 과목 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국어 교과목 운영 내용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에 따라 학생이 선택한 다양한 과목에 대해 교사가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책임교육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한 교사의 체계적인 과목 지도가 관건이 된다(김영은 외, 2023).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 교사의 지도 과목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적용되던 2007년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

되고 고교학점제를 부분 적용하고 있는 2023년의 국어 교사의 과목 지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11> 국어 교사의 교과목 지도 현황

구분	2017년							2023년						
	국어 교사 수	1과목 지도 교사 수		2과목 지도 교사 수		3과목 이상 지도 교사 수		국어 교사 수	1과목 지도 교사 수		2과목 지도 교사 수		3과목 이상 지도 교사 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A교	4	2	0	2	0	0	0	4	2	0	2	0	0	0
B교	4	2	0	2	0	0	0	4	2	0	0	0	2	0
C교	6	5	0	1	0	0	0	6	1	0	2	2	1	0
D교	6	3	0	0	3	0	0	6	2	0	4	0	0	0
E교	7	4	0	3	0	0	0	7	2	0	4	1	0	0
F교	6	4	0	2	0	0	0	7	4	0	1	0	1	1
G교	7	5	0	2	0	0	0	6	2	0	3	0	1	0
H교	6	5	0	1	0	0	0	6	4	0	0	0	2	0
I교	8	5	0	3	0	0	0	8	4	0	3	0	1	0
J교	7	7	0	0	0	0	0	8	4	0	4	0	0	0
K교	8	6	0	2	0	0	0	10	8	0	1	1		0
L교	9	7	0	1	0	1	0	10	2	0	5	2	1	0
M교	10	6	0	3	1	0	0	11	6	0	4	1	0	0
N교	9	7	0	2	0	0	0	9	3	0	3	0	1	0
O교	11	10	0	1	0	0	0	12	7	0	3	0	2	0
P교	11	10	0	1	0	0	0	11	8	0	3	0	0	0

구분	2017년						2023년								
	국어 교사 수	1과목 지도 교사 수		2과목 지도 교사 수		3과목 이상 지도 교사 수		국어 교사 수	1과목 지도 교사 수		2과목 지도 교사 수		3과목 이상 지도 교사 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합계 (평균)	119	88 (73.95%)	0	26 (21.85%)	4 (33.6%)	1 (0.84%)	0	123	61 (49.60%)	0	42 (34.15%)	7 (5.69%)	12 (9.76%)	1 (0.81%)	
		88		30		1			61		49		13		
		(73.95%)		(25.21%)		(0.84%)			(49.60%)		(39.84%)		(10.57%)		
지역	읍면 지역 (4교)	21	13 (61.90%)	0	8 (38.09%)	0 (0%)	0	21	10 (47.61%)	0	6 (28.58%)	0	4 (19.05%)	1 (4.76%)	
			13		8		0		10		6		5		
		(61.90%)		(38.10%)		(0%)			(47.61%)		(28.58%)		(23.81%)		
	동 지역 (12교)	98	75 (76.53%)	0	18 (18.37%)	4 (4.08%)	1 (1.02%)	0	102	51 (50%)	0	36 (35.29%)	7 (6.86%)	8 (7.84%)	0
		75		22		1			51		43		8		
		(76.53%)		(22.45%)		(1.02%)			(50%)		(42.16%)		(7.84%)		
규모	30학급 미만 (8교)	46	30 (65.22%)	0	13 (28.26%)	0	3 (6.52%)	0	46	19 (41.30%)	0	16 (34.78%)	3 (6.52%)	7 (15.22%)	1 (2.17%)
			30		13		3			19		19		8	
		(65.22%)		(28.26%)		(6.52%)			(41.30%)		(41.30%)		(17.39%)		
	30학급 이상 (8교)	73	58 (79.45%)	0	13 (17.81%)	1 (1.37%)	1 (1.37%)	0	77	42 (54.55%)	0	26 (33.77%)	4 (5.19%)	5 (6.49%)	0
		58		14		1			42		30		5		
		(79.45%)		(19.18%)		(1.37%)			(54.55%)		(38.96%)		(6.49%)		

※ 전공불일치 과목 담당 교사 수에서 코티칭 교사 수는 ()로 표시하고, 합계 및 평균에서 제외함. (코티칭 수업의 경우, 교직자격증이 없는 채용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교사가 학생 관리(출결 등)를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함.)

2023년 수업에서 2과목 이상 지도 국어 교사 수는 61명으로 전체 국어 교사 수의 50%에 해당한다. 2017년 2과목 이상 지도 국어 교사 수는 31명(26.05%)에 대하여 크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3과목 이상 지도 국어 교사 수는 읍면지역 및 30학급 미만 학교가 각각 동지역 및 30학급 이상 학교 대비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교과목별 표시과목 자격 기준

<p>※ 전공 일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과목 '국어': 국어(공통 과목), 화법과 작문(일반선택 과목), 비평적 읽기와 쓰기(고시 외 과목) 표시과목 '기술': 기술·가정(일반선택 과목), 기계일반(전문교과Ⅱ), 논술(일반선택 과목) <p>※ 전공 불일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과목 '수학': 수학(공통 과목), 수학 I(일반선택 과목), 교육학(일반선택 과목)(불일치) 표시과목 '화학': 화학 I(일반선택 과목), 화학Ⅱ(진로선택 과목), 사진의이해(전문교과Ⅰ)(불일치) <p>※ 전공 불일치 판단 기준</p> <p>(1) 교양 교과목의 전공 일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리학, 논술: 모든 전공 일치 철학: 표시과목 철학, 심리학: 표시과목 심리학, 교육학: 표시과목 교육학, 종교학: 표시과목 종교, 진로와 직업: 표시과목 진로진학상담, 보건: 보건교사, 환경: 표시과목 환경, 실용경제: 표시과목 통합사회, 일반사회 <p>(2)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 교과 전공 일치 여부: 계열 및 교과(군) 유사성에 근거하여 판단</p> <p>(3) 고시 외 교과 전공 일치: 자격증 표시과목이 아닌 교육 내용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판단</p>
--

또한 2023년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 수가 8명으로 2017년 4명보다 4명이 증가되었다. 국어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교육학, 환경, 심리학 등 교양 과목이다. 앞서 〈표 5〉와 〈표 7〉에서 살펴봤듯이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이 줄고, 학생 선택 과목이 확대되면서 국어과 운영 수업 대비 국어 교사들의 국어과 수업 시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교양 과목 운영을 통해 수업 시수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에서 2023년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교사의 전공 불일치 과목 담당 교사 수를 살펴보면 중 국어 교사가 8명으로 수학과 2명, 영어과 6명 대비 전공 불일치 과목을 담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다과목·다교과 지도 현황(2과목 이상 담당 교사 수)

구분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다과목· 다교과 담당 교사 수	전공불일치 과목 담당 교사 수	다과목· 다교과 담당 교사 수	전공불일치 과목 담당 교사 수	다과목· 다교과 담당 교사 수	전공불일치 과목 담당 교사 수
A교	2	0	2	0	1	0
B교	2	0	3	0	1	0
C교	5	2	4	0	5	0
D교	4	0	3	1	5	2
E교	5	1	3	0	5	0
F교	3	1	4	0	4	0
G교	4	0	5	0	4	0
H교	2	0	3	0	2	0
I교	4	0	6	0	4	0
J교	4	0	6	0	4	0
K교	2	1	6	0	4	3
L교	8	2	6	0	4	0
M교	5	1	4	1	4	0
N교	4	0	10	0	6	1
O교	5	0	7	0	5	0
P교	3	0	5	0	1	0
합계	62	8	77	2	59	6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확대 운영될수록 학생의 선택에 따라 과목 운영(개설)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과목이라도 과목 선택의 범위나, 수강신청 선택지 내 함께 배치된 과목에 따라 실제 수강 인

원과 그에 따른 과목의 분반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 교사들은 국어 교과 운영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또는 위기 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에는 국어교과협의회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을 통해 교과 간 입장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어 교사의 다과목 지도가 증가함과 관련하여 국어 교과목의 내실 있는 책임 교육을 위하여 업무 경감, 시수 감소 등 국어 교사 수업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내실있는 다교과 및 다과목 지도에 대한 국어 교사로서의 고민 역시 필요하다.

2.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인식 분석

국어 교사의 고교학점제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일반고 국어 교사 중에서 학교의 소재 지역 및 규모를 안배하고, 10년 이상 교사 경력의 고교학점제 업무 경험이 있는 국어 교사 4명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8명의 국어 교사를 면담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 전에 질문지를 미리 제시하였고, 이후 온라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각 면담 참여자별로 1회, 회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교사 심층 면담을 통해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국어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문헌 고찰,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드러난 범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에 대하여 국어 교사의 의견을 물었다. 면담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국어 교사 대상 면담 내용

○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 1) 국어 교과목 편성 시 국어 교사로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2) 지역 또는 학교 간 국어 교육과정 편성의 격차 발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격차 발생과 관련하여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3) 학생 수요를 반영하려고 할 때, 국어 교과목 편성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 1) 국어과 선택 과목을 운영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 2) 내실있는 국어 교과목 운영을 위해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한가요?

1) 국어 교과목 편성 시 국어 교사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국어 교사 대부분이 소속 학교의 학생들의 수요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가 중시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교육과정 운영에 바탕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학교 내신 1~100%까지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학업 능력, 진로, 적성의 스펙트럼이 넓고, 남학생들이라 국어에 관심이 많지도 않아요. 이러한 친구들이 국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대문학 감상>, <문학과 매체> 등 최대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B고 교사

그리고 선택 과목을 편성할 때 교사들은 국어교육의 지향점을 고려하고 있었다.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까지 고려하며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역량을 함양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빠짐없이 매학기 3단위 이상의 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어과 교육과정이 통합적 국

어 활동을 강화하고, 타교과 학습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기에 걸쳐 학생들이 선택한다면 이런 교육과정의 흐름에 맞게 학생 활동 중심으로 타교과 학습과 연계해서 국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E고 교사

그러나 면담 참여자 모두가 대학 입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대학 진학을 주요 목표로 하는 일반고등학교의 현실에서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고려하는 것은 교육과정 편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이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대입을 고려했을 때 어느 학년에 어떤 선택 과목을 배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현재 3학년에 편성되어 있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을 다음 신입생 때는 2학년으로 내리기로 했어요. 입시와 관련되는 과목인 만큼 조금 일찍 학습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 O고 교사

사실상 대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과목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수능 과목을 보충,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수업을 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 G고 교사

국어 교과목 편성 시 국어 교사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학생의 수요, 국어교육과정의 목표, 대학 입시 제도의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학생, 국어교육과정, 대학 입시 제도 이 세 변인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 요인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유의미하게 고려한 내실있는 국어과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2) 지역 또는 학교 간 국어 교육과정 편성의 격차 발생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방안

국어과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하여 국어 교사들은 소재 지역 또는 규모의 차이로 인한 격차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학교 내 국어 교사들의 태도 및 특성을 통해 국어과 교육과정 편성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의 차이가 곧 학교교육과정의 격차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즉, 학교의 소재 지역과 학교 규모로 인한 격차가 아니라,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에 중심 고려 대상을 누구로 놓느냐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 편성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이지만 대규모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국어 교사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어과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 B고 교사

국어 교사들은 원래 사회, 과학과에 비해 다과목 지도를 안했었잖아요. 그러한 일종의 습관 때문에 다과목 지도를 좀더 꺼려하거나, 국어 교사들의 안정적인 시수 확보를 중요시하거나, 과목 편제 관련해서 교과협의회를 할 때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 D고 교사

사실 여전히 학교에는 고교학점제 취지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생님들도 많아요. 수능 준비 위주로 여전히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P고 교사

또한 학교 및 학생의 대입 지원 성향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 편성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내용 역시 학교 소재 지역과 학교 규모 등의 환경에

의한 격차이기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특성으로 인한 격차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 하였던 ‘교사들의 특성으로 인한 격차’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가 수능 중심 학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수능 을 중요시하고 정시 중심으로 간다면 아무래 국어 수업 자체 수능 문제 풀이 위주로 운영될 것이고... 사실 이런 학교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렇다고 해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위주 의 학교라고 해서 수능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는 게 수능 최저 등 급이 있어서 문제 풀이 수업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 죠. 결국 대입에 있어서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문제 풀이 수 업과 학생 활동 중심을 적절히 안배하는 수준에서 국어과 교육과정 이 운영하다 보니 지역 또는 학교 간 국어과 교육과정의 격차가 발 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E고 교사

학교 간 국어과 교육과정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환경(소재지, 규모 등)에 의 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만들어낸 특성의 차이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완 화하기 위한 거창한 지원 방안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면담 참여 교사들 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교사들은 국어과 교육과정 운영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학교 간 소통 기회 확대를 요청하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역 또는 학교의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 학교에서 이해한 만큼, 운영하려는 방향성 대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거라서 이에 대한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의 국어과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국어과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연수만큼은,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과 정 이해와 같은 연수만큼은 기본적으로 자세하게 운영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고, 지역 차원에서 교과서 개발 등에 뜻을 가진 선생님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A고 교사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규정이 생기더라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거나 너무 오래 걸려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하고 질 높은 국어과 선택 과목을 운영하는 것 역시 교사가 연수와 연구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이해를 높여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서는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머리 속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함께 연구하고 실습하고 각 학교의 구체적 사례도 나누는 연수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F고 교사

이처럼 국어 교사들은 지역 또는 학교 간 국어 교육과정 편성의 격차 발생에 대해 학교의 소재 지역, 규모와 관련된 특징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특성에 의한 격차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수 및 소통 기회 확대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국어 교과목 편성의 어려움 인식

국어과 학교교육과정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였고, 그 안에서 국어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입제도는 이러한 학교교육과정 변화의 상황과 연결성이 부족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변화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해 때로는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참여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지를 열어준다고 해도,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입시와 연관되는 과목 위주로 치우치는 듯 해요. 또 다른 과목이 실제로 개설된다고 해도 수강생 수가 적어서 수업 준비하는데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 O고 교사

또한 국어 교사들이 제시하는 과목이 실제 학생들의 수요와 맞지 않았을 때 국어 교사들에게 혼란감이 발생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진로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을 도전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쉽고 흥미있는 과목,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능 과목과 대학별 지정 과목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적성과 관련 없이 성적 산출이 유리한 과목(다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진로선택 과목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 중심의 학생 선택이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에게 유의미하지만, 학생들이 당연히 선택하지 않을 과목들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고민이 됩니다. 교사들은 편성을 해봤자 어차피 개설이 되지 않을 것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괜한 과목을 개설했다가, 폐강되고, 우리 국어과에서 담당할 시수가 부족하면, 결국 또 교양 과목을 맡거나 순회를 가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니... 한두 차례 편성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교체하기도 했어요.

- A고 교사

교사들이 열심히 진로·학업설계지도를 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과목을 안내하여도, 학생들이 막상 수강 인원이 적어서 성적 받기가 불리할 것 같거나, 또는 우수한 학생들이 너무 몰려 있거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와 상관없이 과목 변경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허무할 때가 많았어요.

- P고 교사

한편 국어 교과는 과목 특성상 기초 교과이자 도구 교과로서, 수학·사회·과학 교과와 비교하였을 때 학생들의 진로에 크게 좌우되는 과목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선택의 유인가’가 있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학생들의 순수한 수요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는 교사도 있었다.

그런데 과목 선택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과목 자체가 선택의 유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어과 선택 과목 자체가 선택의 유인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매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학생 수요를 반영해서 국어과 과목 편성을 한다는 거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오히려 현실은 학생 수요보다는 수능 선택

이나 등급 유불리에 따라 과목 편성이 좌우되죠.

대개의 학교에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지만 이게 학생 수요를 반영해서 선택 과목 편성을 했다기보다는 수능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편성되는 거라서... 결론적으로 학생 수요 자체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 국어과 과목 편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O고 교사

이렇듯 국어 교사들은 학생 수요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입제도와 학생의 수요와 관련하여 크게 유인가가 없는 국어 교과목의 특성 등의 이유로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국어 교과목 편성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4) 국어과 선택 과목 운영의 어려움 인식

국어 교과목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이전에는 주로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되어 학교 내 국어 교사의 정원 및 담당 시수가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며 운영되었던 기초 교과목이다. 또한 현재에도 수능 응시 과목 중 국어과 공통 과목은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일부 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어 교사들의 시수는 불안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국어 교사들도 존재하게 되었다. 국어 교사들은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과 평가의 내실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다과목 지도 문제가 국어과에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과목 지도가 중 가장 최악은 일반선택 과목을 두 과목 이상 맡게 되는 경우죠. 1~9등급까지 산출되는 과목이니까요. 한 사람이 일반선택 과목을 두 과목 이상 지도하는 경우를 최대한 피하다 보니 진로선택 과목을 누군가는 세 과목 이상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고전 읽기>, <심화 국어> 같은 진로선택 과목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지 않으려 하고 자꾸 표준화된 수업만 하려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고전 읽

기> 같은 경우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고전 텍스트 읽기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전 문학 위주의 수능 문제 풀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고전 문학 수능 문제 풀이하는데 나 혼자 진짜 고전 읽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감 무시 못하죠.

- E고 교사

국어 교사들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수업과 평가의 질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고 한다. 한 과목을 여러 반 가르치던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한 반 대상으로 가르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수업의 질 관리를 염려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되면서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횟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관련 어려움도 토로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에 따른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과목 개설을 하다보니, 학교 측에서는 개설 인원만 충족된다면 한 반만 운영될지라도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을 보장해주고자 하므로 다과목 지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사에게도 생소하거나, 수업 경험이 적은 과목은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그에 반해 실제 수업은 1학년만을 대상으로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부담이 돼요. 또한 수업 준비 시간은 한정적인데 수업 시수가 비슷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수업 자체가 늘어나다 보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구요. 이걸 단지 교사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교사의 부담을 나눠 가질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 D고 교사

특히 소규모 학교 교사의 경우는 특히 다과목 지도로 인한 어려움의 고충이 컸다.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된 상황에서, 한 과목을 가르칠 때보다 교재 연구를 포함한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교과의 경우에는 지도서와 관련 수업 자료가 없

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가 2018년도에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 <독서와 문법> 한 과목을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심화 국어>, <현대문학 감상>, 이렇게 총 세 과목을 가르쳤어요. 분명 제가 담당하고 있는 2018년이나 지금이나 수업시수는 똑같은데, 과목의 수가 3개로 늘어나다보니 수업 준비, 평가 준비가 정말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문학 감상>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를 진로선택으로 끌고와서 편성한 과목인데요. 지도서도 없고, 관련 수업 자료도 없어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 B고 교사

이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 운영으로 남게 되는 국어과 시수에 대해서는 교양 과목으로 시수를 충당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이 다양한 늘어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시수가 남게 되는 국어과에서 주로 맡게 되었어요. 저는 논리학을 가르쳤었는데요. 전공과 관련 없는 교양 과목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전공과목 연구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더라고요.

- B고 교사

이처럼 국어 교사들은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과 평가의 내실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교사용 지도서 등의 수업 자료가 없는 전문교과 수업 운영의 어려움, 수업 시수 부족으로 인해 전공이 아닌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토로하였다.

5) 내실있는 국어 교과목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면담 참여 교사들은 내실 있는 국어과 선택 과목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개설되는 다양한 국어과 과목들에 대한 안내 및 효과적인 수업 사례

공유가 이루어지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같은 과목을 지도하게 된 선생님들끼리 수업 관련 정보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듯해요. 또한 전문교과의 경우에는 정기고사 실시 횟수를 줄이고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수행평가 채점에는 국어 교과의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만큼 수행평가 관련 역량 강화 연수가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 O고 교사

그리고 국어 교사의 연수 참여율은 연수의 필요성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데에 의견을 공감하였으며, 연수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방식의 실천적 소모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교사 연수보다는 교사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소모임 형식으로 국어 교사끼리 공부하는 모임을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나 뭐 이런 흐름이 결국은 국어 교사 네트워크나 국어 교사 공부 모임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교육과정 공부하고 교재 구성하기에는 벽찰 수밖에 교육과정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는 좀 수동적이고 또 뭔가 완벽한 사례를 듣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소모임은 실천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 G고 교사

고교학점제에 따른 내실 있는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간 협력 문화 또한 중요할 것이다. 국어 교사들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관련 역량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한 협력이 기반이 될 때, 교사의 노력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V.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쟁점 및 개선 방향

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쟁점

앞장에서 다룬 제주 지역 일반고의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현황 및 인식 분석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제주 지역의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1) 학생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

제주 지역의 국어과 학생 선택형 편성·운영을 살펴보면, 학교 지정 과목 단위와 과목 수가 감소하고, 이와 연계되어 학생 선택 과목 단위와 과목 수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과 비교해보면, 단위학교 내 국어 교사의 담당 수업 시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유지되거나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 수도 증가하였다. 특히 선택 과목을 편성할 때, 편성 방식을 ‘동일 교과(국어 교과) 영역 내 선택’ 등 교사 시수 보장을 위해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학교일수록 국어 교사 중 상치 교사 수가 많이 분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국어과 학생 선택 과목 확대 운영으로 국어 교사의 수업 시수가 감소한 이유를 앞장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교과의 특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원(2016)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어’ 라는 교과를 어느 위치에 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뒤 ①총론의 취지를 언어 측면에서 구현하는 교과, ②발전된 개념의 도구 교과(사고 도구, 소통 도구, 문화 도구, 학습 도구), ③주제(내용)와 의사소통 활동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교과, ④다른 교과 학습, 비교과 활동, 학교 밖 활동들과 언어를 매개로 연계되는 교과를 답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국어 교과의 특성을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보더라도, 타 교과에 비해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이 크게 좌우되는 과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국어 교사들은 면담 조사에서 국어과 과목이 학생의 과목 선택 상황에 선택의 유인가가 다른 교과에 비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은(2021)도 학생이 흥미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에 있어서 국어과 과목명의 매력도가 크지 않은 편으로,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나 목표를 충분히 살리기에 부족하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애초에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편성 가능한 국어 교과목 수의 부족이다. 제주 지역 일반고의 국어 교과목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선택 과목은 100%로 편성되었으며, 진로선택 <심화 국어> 과목과 전문교과 I <현대문학 감상> 과목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물론 전문교과 I 은 다른 교과와 비교하였을 때, 보통교과 성격과 아주 크게 차이가 있어서, 선택 과목 이수 경로를 지정하기가 어렵고, 과목의 내용 간 중복이나 수준 차이 문제가 있어 개설에 한계가 있다(김영은, 2021). 한편, 기초교과군(국어, 영어, 수학)에서 편성 과목 수를 비교해보면, 수학과 과목 수에 비해 국어과는 상대적으로 편성된 과목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표 13) 참고).

셋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 경향성이다.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쉽고 흥미 있거나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수능 과목과 대학별 지정 과목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적성과 관련 없이 성적 산출이 유리한 과목(다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진로선택 과목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 중심의 학생 선택이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김연(2020)은 학생들이 개별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기보다 ‘과정’을 설치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혼란을 막고 과목 선택을 가이드한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이 개별 과목을 선택할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로 국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학기별 과목 수의 고른 선택을 유도하여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까지 고려하며 깊이있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교사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과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과목이 상충되었을

때 혼란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출근 학교 지정 과목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국어 교과가 학생 선택 과목으로 편성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학생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국어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국어 교사의 시수 감소로서 체감하게 되었다. 즉, 국어 과목의 특성, 국어 과목 수, 학생의 과목 선택 경향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 국어 교사의 시수와 연결되어 나타났다.

2) 학교 간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격차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지역 특성 및 학교 규모에 따라 다양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되고 있다. 학교 간 편성·운영 과목의 차이, 과목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차이 등에 따라 교육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 측면에서 학생 선택 단위의 비중, 선택 가능한 과목의 수, 과목 개설의 다양화 등에 있어 농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가 도시 지역이나 중·대규모 학교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임유나, 2023). 이와 관련하여 박지한 외(2021)의 연구에서도 인적 자원 수준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며, 다양한 선택 과목을 충당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결과적으로 개설 과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제주 지역 국어과 학생 선택형 편성·운영을 살펴보면 소재지 및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 우선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지역 학교와 30학급 미만의 학교가 동지역 학교와 30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보다 학교 지정 과목 수와 단위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어과 학생 선택 과목 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지역과 30학급 미만의 학교가 동지역과 30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보다 국어과 학생 선택 과목 수(개설 가능한 과목 수, 선택 가능한 과목 수)와 단위 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 7>참고). 이는 읍면지역 학교, 소규모 학교의 경우 결과적으로 개설 과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박지한 외, 2021)과 정반대 되는 결과이다.

게다가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국어 교사들은 학교 소재 지

역 또는 규모 차이로 인한 격차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어 교사들의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태도, 학교구성원의 대입 진학 성향 등의 특성에 따라 학교 간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교육과정 편성 시 주요 고려 대상을 누구로 놓느냐에 따른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의 차이가 곧 학교교육과정의 격차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및 학생의 대입 성향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 편성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내용 역시 지역과 학교 규모 등의 환경에 의한 격차이기보다는 학교구성원 스스로가 만들어낸 격차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하였던 ‘교사들의 특성으로 인한 격차’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국어과에 있어서 학교 소재지 및 규모에 의한 격차 논의보다는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격차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간 특성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논의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3) 국어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수업·평가의 질 관리

국어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에 대한 거부감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초기보다 많이 줄었다. 그렇다고 부담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고교학점제로 촉발된 수업과 평가 혁신은 교사에게 강도 높은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한다. 수업과 평가의 패러다임이 점차 학생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성장 중심으로 이행될수록, 이 강도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최소영, 2021) 그런데 제주 지역에서 2023년 현재 2과목 이상 지도하는 국어 교사는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특히 3과목 이상 지도 교사 수는 읍면지역 및 30학급 미만 학교가 동지역 및 30학급 이상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2017년와 비교해보면 2023년 3과목 이상 지도 교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면담 조사 결과, 다과목 지도 사례 증가로 인해 국어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의 질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과목을 여러 반 가르치던 교사들 대신 여러 과목을 한 반 대상으로 가르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수업과 평가의 질 관리를 염려하게 되었다.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횟수가 증가에 따른 어려움도 토로하였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다과목 지도

로 인한 어려움의 고충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전문교과의 경우에는 지도서와 관련 수업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수정 등(2020)은 다과목 지도 부담 완화와 지도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상은 외(2019)는 중기적으로 교사의 담당 교과 확대가 우선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전공 관련 교과를 연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교사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에 따른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교사들이 보다 적절한 수준에서 다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등의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 방향

제주 지역 일반고 16교의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제기된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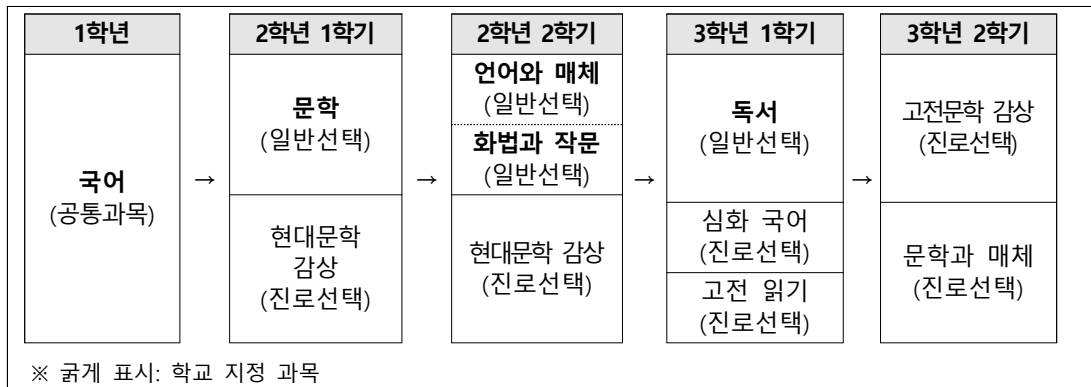
1) 수요자 중심의 과목 선택 기준 정교화를 위한 국어 교과목 이수 경로 설정

국어 교과목 구성에서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의 과목 간 수준이나 진로에 따른 위계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다면, 별다른 이수 경로의 안내 없이 과목 구성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국어과의 경우 전통적으로 선택 과목 범주의 과목 간에 이러한 위계가 뚜렷하지 않고 어떤 과목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적 단계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다. 따라서 국어과에서 명백히 정해진 이수 경로는 크게 ‘공통 과목을 이수한 후 선택 과목을 이수한다’는 정도로 축약해볼 수 있다(김영은 외, 2022).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위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학 교과목, 진로·적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회와 과학 교과목에 비해 학생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편성과 안내, 학생들의 적극적인 국어 교과목 선택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국어 교과에 대한 균형 있는 이수와 학생의 진로와 학업 능

력에 따른 의미 있는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의 과목 선택 정교화를 위해 교과목 편성의 단순한 양적 확대뿐 아니라 이수 순서를 고려하여 개설하는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 임유나(2019)는 학생의 진로, 수준, 필요 등에 따른 과목 구성 및 이수 방안의 제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학년별로 과목 이수 순서나 선수과목 요건을 제시하여 교과목 이수를 안내하고 학습 계획 수립을 강조하는 해외 사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학생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국어 교과목의 이수 경로를 설정하여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본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국어과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국어 교과목 이수의 길을 제시해야 하여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국어 과목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목 이수 경로 설정에 있어서 학교는 교과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①교과목의 내용 체계, ②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방침, ③대입 제도와의 연계(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④학교·학생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 국어 교과목 이수 경로 예시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국어 교과목 이수 경로 예시

고교학점제에서 선택의 질은 고교 3년간의 교과목 이수가 학생의 적성, 진로, 수준에 부합하였는가의 관점에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광우, 2018).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국어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국어 교과목을 타당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별 국어 교과목 이수 경로 체제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 학교 간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 플랫폼 기반의 국어 교사 네트워크 운영

학교 간 국어과 교육과정의 차이는 학교 소재지, 규모 등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수와 소통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 교사의 자발성과 동료성, 요구에 근거한 교육공동체 연수를 운영할 때 연수의 참여도 및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교사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국어 교사들이 학교 간의 국어교육과정의 차이를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격차를 좁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서 지역 내 국어 교사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하다.

교사 네트워크는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과 학교 교육력 증진에 필요한 사회자본과 정보 및 지식 등의 확충을 위한 매개물이자 통로로서 교사의 사회 자본 형성과 발현의 구조적 역할과 단위학교 내에서 형성된 수평적인 관계의 교사들이 만들어가는 공식 및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나타낸다(김민조, 2012; 신철균, 2007). 이러한 교사 네트워크는 교사의 의사소통, 직무만족감, 사회자본 확충을 비롯한 지식의 전이와 공유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혜진 외, 2017; 김민정, 2019).



[그림 7] 국어 교사 네트워크 운영

따라서 [그림 7]과 같이 국어 교사 네트워크 운영을 제안한다. [그림 7]의 국어 교사 네트워크는 국어 교사의 자발성과 동료성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적 소모임으로서 서귀포시 동지역 학교, 제주시 동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와 같이 비슷한 환경의 지역 소모임을 기초 모임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모임은 공유플랫폼을 통해 지역 전체모임으로, 대면(오프라인) 모임만이 아니라 대면(오프라인) 모임과 비대면(온라인) 모임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확장되며, 자료 공유와 소통을 통한 교사의 성장 촉진의 매개체로 기능하게 된다. 국어 교사 중심의 국어교육과정 및 국어수업 네트워크 활성화는 교사들이 국어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 다양한 국어 교과목 개설에 따른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질 관리 추구 등 국어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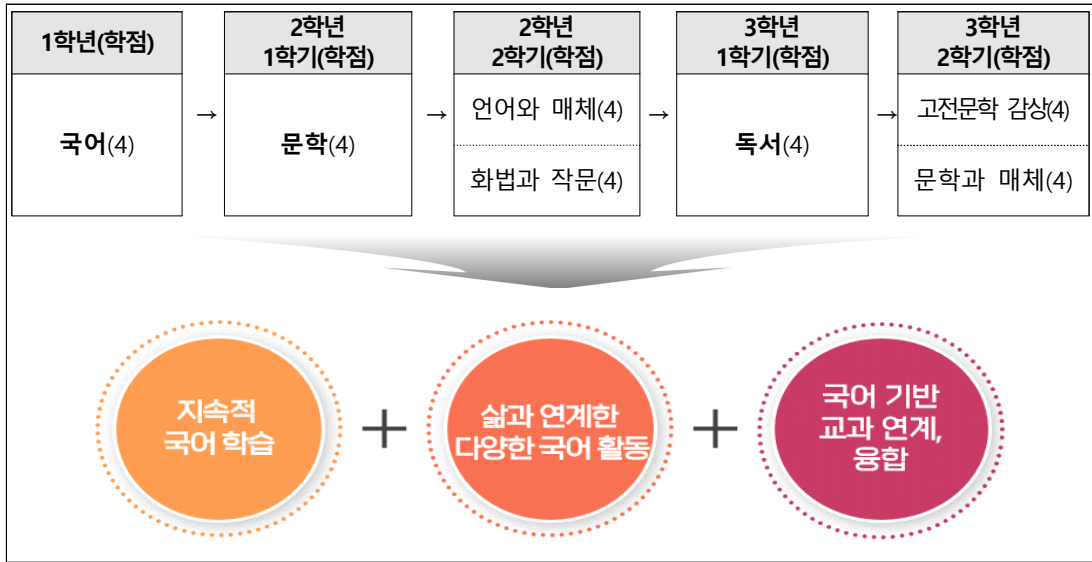
3) 기초 교과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어 교과목의 적정 시수 확보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의 의미와 실현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우려와 불안이 공존한다. 먼저 학생들이 과연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입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손쉬운 과목을 선호하지 않는가, 설사 학생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학습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란주 외, 2018).

이민형(2020)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환경이면서 동시에 고교학점제가 정착된 홍콩 교과 교육과정의 체제를 모국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현재 한국 고교학점제에서 지행하는 교과 교육과정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홍콩 고등학생들은 3년간 핵심과목(중국어, 영어, 수학, 교양교과)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모국어 핵심교과에 해당하는 중국어 교과에 3년간 할당된 시간은 전체의 12.5%~15%(313~375시간) 정도이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국어 교과군의 필수 이수 단위는 10단위이며 전체의 5.5%로 핵심교과의 할당 시간 비중이 홍콩에 비해 낮다. 또한 홍콩은 선택 과목을 2~3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택 과목 안의 다양한 범주에 중국문학 등 과목이 제시되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목은 기초 문해력 교육이 강화되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국어 수업시간이 34시간 늘어난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전체 수업량은 현재 204단위(총 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어들고, 국어·수학·영어는 현행 10단위에서 8학점(과목별로 한 학기 4학점)으로 줄어, 한 과목당 수업시간이 현행 141.7시간에서 106.7시간으로 35시간씩 줄어든다. 즉, 고등학교의 세 과목의 총 수업시간은 105시간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 사고 교과, 문화 교과로서의 다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국어 능력은 모든 교과를 이해하는 기본이자 의사소통 및 사고를 심화시키고, 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지혜, 2020). 따라서 국어과는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통해 선택 과목 수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급에 맞는 역량과 기초 소양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의 학교 지정 과목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수 과목을 단위학교 맥락에 맞게 학교 지정 과목으로 적절하게 선정·운영하여 기초 교과로서 적절한 시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예시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초 교과 1과목의 운영 기준 학점을 4학점이라고 하였을 때, 학기별 최소 4학점을 학교 지정 과목(1학년,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또는 국어 교과 내 선택 과목(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등으로 국어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국어과에서는 이러한 수업시수 확보를 통해 국어 교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국어 학습 및 삶과 연계한 다양한 국어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어 교과 기반의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융합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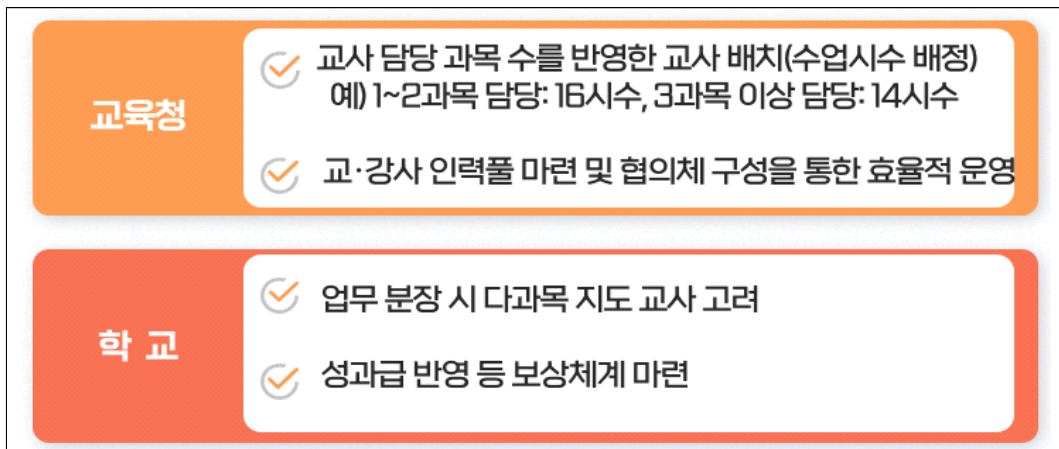
[그림 8] 국어 교과목의 적정 시수 확보 및 운영

4) 다과목 지도 지원을 위한 다과목 담당 교사의 수업 시수 조정과 보상 체계 마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라 증가된 개설 과목 수만큼 교사들의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다. 국어 교사의 다과목 지도의 현실에서 특히 과목 개설 여부가 유동적이고, 개설이 되더라도 한 반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국어 교사의 다과목 지도의 고충이 더욱 크다. 이에 더해 학교 내에서 담당 시수가 적어서, 타교과의 과목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피로감과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최근에 발표한 교육부(2023)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는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을 위해 ‘개별 학생 맞춤 진로·학업설계 지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관련해서는 전 과목을 대상으로 이수기준을 적용하고, 이수기준 미도달 우려 학생은 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미도달 학생은 보충지도·대체이수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양한 교과목 개설에 따른 다과목 지도와 더불어 진로·학업설계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의 다양한 역할이 국어 교사에게 주어지게 됨에 따라 교사들은 많은 걱정과 함께 내실 있는 다과목 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신윤범 외(2020)는 행정직원 배치, 역할 분담, 교원 수급 등의 지원이 실제 업무경감 효과로 나타나야 하며, 다과목 담당 교사를 위한 지원이 실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국어 교사의 다과목 지도 부담 완화와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그림 9]와 같이 필요하다. 우선 국어 교사들이 교육과정 역량을 강화하고, 질 높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조정, 교·강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인력풀 마련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효율적 활용 등 학교의 변화와 교사의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과목 지도 교사에게는 행정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수업-평가-기록 등과 연계한 업무 증가와 관련하여 보상체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림 9] 다과목 지도 지원 시스템

5) 국어 교과목 수업·평가의 질 관리를 위한 국어 교사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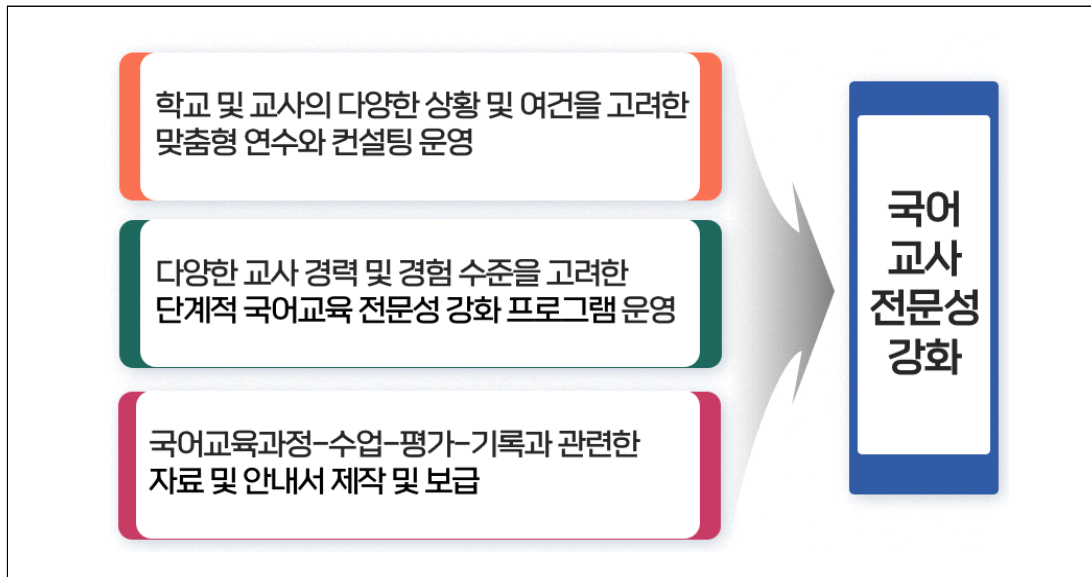
국어 교사들의 국어과 교육과정 이해와 운영에 대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에 취지에 맞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받던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에 따라 수업 시수가 달라지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장에서 실태 분석을 통해 학교 문화, 관심 정도, 경력 등에

따라 고교학점제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및 교사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어 교사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적극적 참여자로서 능동적으로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어 교과가 도구 교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로 교과로서의 역할도 해낼 수 있도록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어과 진로와 관련한 적극적인 진로·학업설계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진로·적성과 관련하여 국어 교과목 개설 및 안내 등을 통해 과목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회가 교사 맞춤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교사 경력 및 경험 수준에 맞춰 국어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평가-기록의 질적인 운영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제주 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국어 교사들 중에서 일부는 고교학점제 및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교수·학습 및 평가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수업 및 평가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어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안내서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은 국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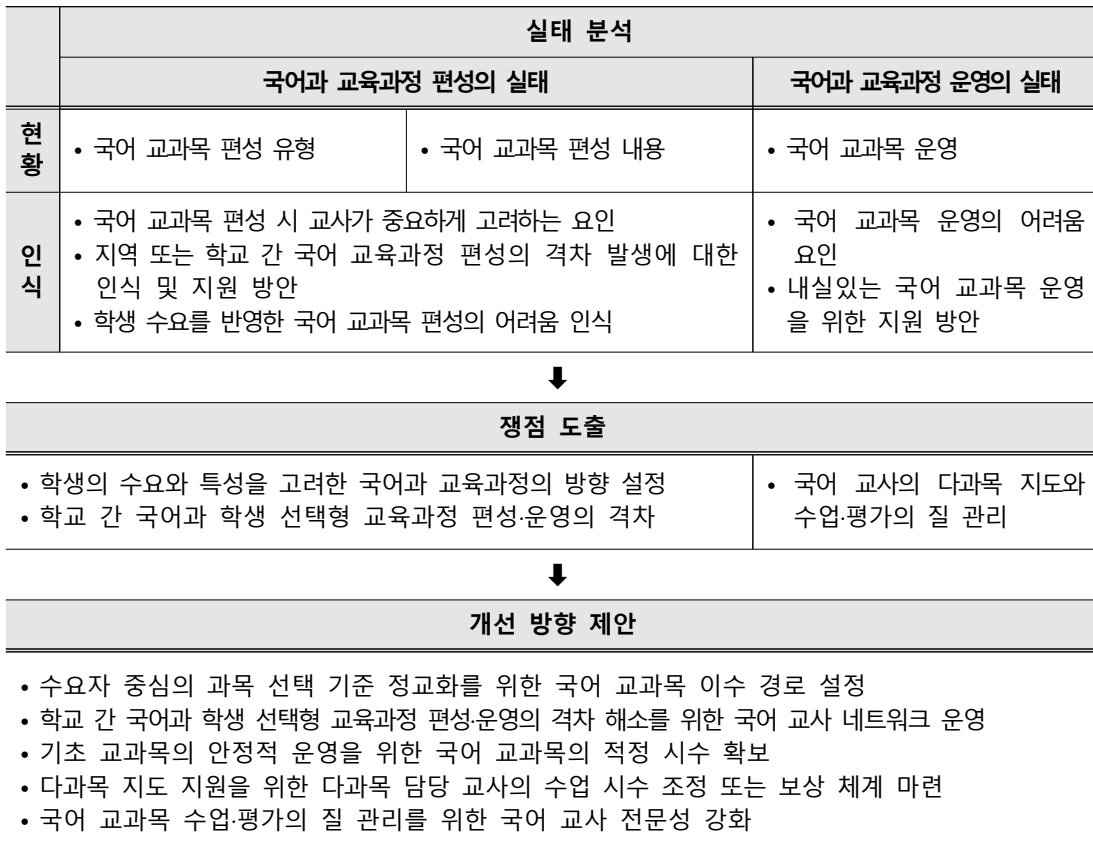
한편 장기적인 접근에서 교과 경계의 약화, 교과 성격의 변화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앞으로의 교육은 단일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교사 전문성을 말하기는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미래형 국어 교육에서는 학생의 수준과 특성, 교육 환경 맥락, 디지털 기기의 사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평가를 교사가 기획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외에 이를 실제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하게 요구된다(노은희, 2021). 이에 따라 교사 양성 과정 개편 및 체계적인 심화 교육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국어 교사의 전문성 강화

V. 결론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를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해 나가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학교교육과정이 학생의 다양한 교육과정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편성·운영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김영은 외, 2023). 이와 관련하여 제주 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운영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 분석

○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황 분석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3학년으로 갈수록 국어과 학교 지정 과목 수와 단위 수가 감소하고, 학생 선택 과목 수와 단위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과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읍면지역과 30학급 미만 학교가 각각 동지역과 30학급 이상 규모 학교보다 학교 지정 과목 수와 단위 수가 더 적었다. 그러나 국어 교과 내에서 학생 선택 과목의 최소 시수 운영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학생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국어 교과목이 학생의 수요에 따라 하나도 개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의 국어과 전체 단위 수(국어 교사의 담당 국어 교과목 시수)가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국어 교과목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선택 과목은 모든 일반고에서 편성하였으나,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교과 편성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한편 국어 교과목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수업에서 2과목 이상 지도 교사는 전체 국어 교사의 절반을 차지하며, 2017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과목 이상 지도 교사 수는 읍면지역 및 30학급 미만 학교가 각각 동지역 및 30학급 이상 학교 대비 비율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2023년 상치 교사 수는 2017년 대비 증가 양상을 보였다. 즉, 일부학교에서는 선택 과목 수 증가에 따라 담당 수업 시수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타교과의 과목을 담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인식 분석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련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국어 교사들은 국어과 선택 과목 편성 시 학생들의 수요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학생들이 쉽고 흥미있거나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국어 교과의 특성상 진로 선택 관련 유인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국어과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하여 국어 교사들은 학교 소재 지역 또는 규모 차이로 인한 격차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어 교사들의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태도, 대입 진학 성향 등 학교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학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과목 지도 증가로 인해 국어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의 질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소규모 학교 교사의 경우 다과목 지도로 인한 어려움의 고충이 컸다. 이와 관련하여 내실있는 국어 교과목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교사 연수에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연수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새로운 방식의 실천적 소모임을 제안하였다.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쟁점 및 개선 방향

앞장에서 추출한 제주 지역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쟁점은 총 3가지로, ‘학생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 ‘학교 간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격차’, ‘국어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수업·평가의 질 관리’이다.

쟁점과 관련하여 제안한 개선 방향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과목 선택 기준 정교화를 위한 국어 교과목 이수 경로 설정이다. 학교에서는 국어 교과에 대한 균형 있는 이수와 학생의 진로·학업능력에 따른 의미있는 선택을 유도하고,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수 경로를 설정하여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본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교과목 이수 경로 설정에 있어서 학교는 교과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교과목의 내용 체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방침, 대입제도와 연계, 학교와 학생의 특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교 간 국어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격차 해소를 위한 플랫폼 기반의 지역 내 국어 교사 네트워크 운영이다. 학교 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이는 학교 구성원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차이를 학교 구성원이 직접 인식하고 좁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서 국어 교사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하다. 네트워크의 교사 자발성과 동료성을 기반으로 교육공동체 연수를 운영하고 수업 및 평가 자료를 공유하는 등 플랫폼 기반의 공유·협력을 통한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기초 교과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 지정 과목 편성에 대한 관심 제

고이다. 선택 과목 수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고등학교 급에 맞는 역량과 기초 소양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에 따라 필수 과목을 단위학교 맥락에 맞게 학교 지정 과목으로 적절하게 선정·운영하여 기초 교과로서 적정한 시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과목 지도 지원을 위한 다과목 담당 교사의 수업 시수 조정 또는 보상 체계 마련이다. 교사의 역할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 행정업무 과다 예방을 위한 조치, 보상체계 마련 등의 제도적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국어 교과목 수업·평가의 질 관리를 위한 국어 교사 전문성 강화이다.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의 교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교사 경력 및 경험 수준에 맞춘 교사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의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가치 있는 국어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교육부, 2015)” 하는 데에 교과로서 방향성을 갖는다. 이러한 국어 교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국어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구체적으로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리매김의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이 뒷받침될 때, 국어교육은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보도자료. 2021.11.27.
- 교육부(201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동정자료. 2018.08.17.
- 교육부(2021a).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02.16.
- 교육부(2021b).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 보도자료. 2021.8.23.
- 교육부 외(2023).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ORM 2022-4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영은 외(2023).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과 경향 분석. *중등교육연구*, 71(2), 179-20.
- 김지혜(2020). 고교학점제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 — 대학입시제도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5(3), 99-130.
- 김진숙 외(2018).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창원(2016). 국어과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논제 : 개념과 목표. *국어교육*, 152, 한국어교육학회, 315-342.
- 노은희 외(2021).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현미 외(2020).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 분석(CRC 202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윤범 외(2020).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 인식의 현상학적 분석. *水産海洋 教育研究* 32(1), 109-117.
- 안영은 외(2023).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분석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50(1), 31-59.
- 이광우(2018). 고교학점제 실행 기반 구축 연구 : 수업시수, 학교 밖 학습경험, 조기졸업 및 재이수제(RRC 2018-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동엽 외(2018).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양성·연수 제도 개선방향 연구 (CRC 2018-16-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민형(2020). 홍콩의 모국어 교육과정 체제 연구 — 한국 고교학점제 시행에 주는 시사점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5(3), 215-249.
- 이주연 외(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지도 방안 탐색 :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를 중심으로(RRC 202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주연(2021).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2021 KICE 이슈페이퍼](ORM 2021-40-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지영 외(2022). 경기도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 2022-8.
- 이화영(202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 선택과목 운영 현황 분석 연구. 학교수학, 23(1), 169-187.
- 임유나(2023).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방법연구, 35(1), 73-104.
- 최소영(2021).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학생 평가 현안 및 연구 과제. 문법 교육, 43, 91-127.
- 한정민 외(2021). 고교학점제가 요청하는 국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소고 : 사설시조 교육의 국면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5(2), 65-95.
- 한주(2021).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가정과 교육공동체의 고교학점제 준비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3(2), 1-25.
- 허예지 외(2023).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경험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6(3), 53-79.
- 남녕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 남녕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 남주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 남주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 대기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 대기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 대정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 대정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대정여자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대정여자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삼성여자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삼성여자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서귀포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서귀포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서귀포여자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서귀포여자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세화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세화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신성여자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신성여자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오현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오현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제주제일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제주제일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제주여자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제주여자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한림고등학교(2020).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한림고등학교(2023).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https://www.jje.go.kr/board/list.jje?boardId=BBS_0000093&menuCd=DOM_000001801001000000&contentsSid=2614&cpath= (검색일: 2023. 09. 10.).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udent-Selective Curriculum in Korean Language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ocusing on general high schools in the Jeju region-

This study aims to concretely identify the issues arising in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udent-selective curriculum in the Korean language in the context of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he Jeju region.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tus and perceptions of student-selective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in the Korean language in 16 general high school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survey analyzed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student-selective curriculum in the Korean language for the students who entered in 2018 and those who entered in 2022, examining any changes that have occurred. Additionally, the analysis categorized schools based on their location and siz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Korean language teach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used to derive key issues related to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Planning-related issues included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considering student demand and characteristics, and identifying disparities in student-selective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among schools. Operation-related issues included the quality management of multi-subject instruction and class assessment by Korean language teachers. Based on the identified issue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1. Precision in setting subject selection criteria centered on consumer preferences is necessary to refine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completion path.
2. Operation of a network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is required to address disparities in student-selective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among schools.
3. Adequate class hours for stable operation of basic curriculum subjects in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need to be secured.

4. Adjustment of class hours or establishment of a compensation system for teachers responsible for multi-subject instruction is necessary to support effective teaching.
5. Enhancement of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teachers is required for quality management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struction and assessment.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n language student-selective curriculum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analyzing the Korean language subject and the context of the Jeju region in detail and deriving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Keywords: high school credit system, student-selective curriculum, Korean language student-selective curriculum, Korean language curriculum, Korean language high school credit system, Jeju high school credit system